



Save the Children

2023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결과보고

케냐 와지르의 영양실조
치료 센터에서 퇴원하는
아이샤(Aisha, 2세)와
어머니 사디아(Saadia, 20세)

© Esther Mbabazi / Save the Children

긴급구호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세이브더칠드런의 2023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내역과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어떠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보고드립니다.

2023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내역

1. 확보

USD 약 **1억 1,471만 달러**

한화 약 1,479억 829만 원

세이브더칠드런 30개 회원국이 약 1억 1,471만 달러(한화 약 1,479억 829만 원) 규모의 인도적지원 유연기금(HF)¹을 조성했으며, 이 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기여금은 약 514만 달러(한화 약 67억 2,309만 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기여금²

지원일	국가명	발생 재난	USD (\$)	한화 (₩)
2023-01-11	방글라데시	홍수	20,000	26,043,948
2023-02-09	튀르키예	지진	300,000	390,150,000
2023-02-09	시리아	지진	500,000	650,250,000
2023-02-14	튀르키예	지진	500,000	650,250,000
2023-02-14	시리아	지진	700,000	910,350,000
2023-03-07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³	-	2,000,000	2,640,879,154
2023-06-19	수단	분쟁	70,000	93,933,000
2023-08-18	방글라데시	홍수	100,000	129,630,000
2023-09-04	수단	분쟁	100,000	129,630,000
2023-09-27	MENAE RO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기타	14,711	19,740,690
2023-10-10	아프가니스탄	지진	300,000	388,890,000
2023-10-16	팔레스타인	전쟁	100,000	129,630,000
2023-11-10	아프가니스탄	귀환민 급증	100,000	129,630,000
2023-11-10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100,000	129,630,000
2023-12-08	미얀마	분쟁	100,000	129,630,000
2023-12-08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³	-	110,000	142,593,000
2023-12-11	탄자니아	홍수, 산사태	25,000	32,235,000
합계			5,139,711	6,723,094,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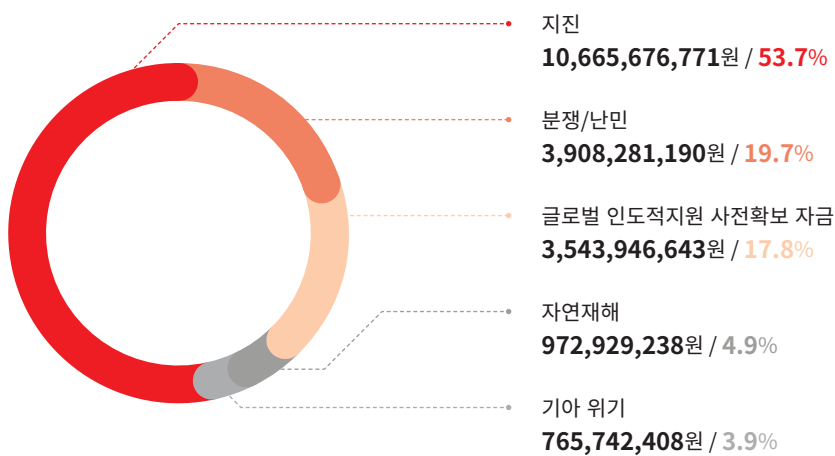
1 인도적지원 유연기금(Humanitarian Fund):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인도적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30개 회원국이 조성한 긴급구호 사전 확보 자금, 긴급구호 자금, 인도적지원 질적 제고를 위한 재원 등으로 이루어진 기금

2 글로벌 인도적지원 유연기금은 23년 12월 기준으로 환율 표기(USD 1\$=1,289.4원),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기여금은 송금 당시 환율로 표기

3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확보한 구호자금으로, 세부 지원 내역은 p.3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TOP 10' 참고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198억 5,658만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을 포함한 무력 분쟁, 기아 위기 등의 재난이 발생한 13개 국가 아동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2023년 재난별 인도적지원 사업



대응 별 구분	발생 재난 ¹	한화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대응	지진	9,989,168,051
우간다 난민 아동 영양 및 교육 지원	분쟁/난민	1,203,237,647
UN기구 협력 분쟁피해지역 평화구축 지원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분쟁/난민	1,040,598,902
로힝야 난민 아동 지원	분쟁/난민	826,814,012
식량위기 긴급 대응(우간다, 소말리아)	기아 위기	765,742,408
아프가니스탄 지진피해 대응	지진	676,508,720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가뭄 대응	자연재해	532,858,771
방글라데시 홍한 대응	자연재해	202,952,616
수단 분쟁 대응	분쟁/난민	287,516,206
KOICA 긴급재난지원 (미얀마, 필리핀)	자연재해	194,836,055
가자지구 분쟁 대응	분쟁/난민	169,127,180
미얀마 분쟁 긴급구호	분쟁/난민	169,127,180
콩고민주공화국 복합 재난 대응	분쟁/난민	169,127,180
부르키나파소 분쟁 대응	분쟁/난민	42,732,884
탄자니아 홍수 긴급구호	자연재해	42,281,795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	3,543,946,643
합계		19,856,576,251

1 발생 재난 중, 지진은 대규모 재난으로 구분하여 별도 표기함



분쟁으로 미얀마를 탈출하여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타리쿨 이슬람(Tariqul Islam, 13세). 타리쿨 이슬람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식수 및 위생시설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 Rubina Hoque Alee / Save the Children

2. 지원

USD 약 **1억 4,502만 달러**

한화 약 1,869억 9,155만 원

약 **2,802만 명** 지원

아동 1,545만 명 포함

2023년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대응에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위기(홍수와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 분쟁으로 기아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TOP 10

국가명	발생 재난	지원금 ¹	지원받은 사람 수 ²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USD 약 3,260만 달러 (한화 약 420억 3,444만 원)	1,417,373명
시리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USD 약 1,170만 달러 (한화 약 150억 8,598만 원)	785,001명
튀르키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USD 약 1,030만 달러 (한화 약 132억 8,082만 원)	157,076명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USD 약 800만 달러 (한화 약 103억 1,520만 원)	80,652명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전쟁	USD 약 750만 달러 (한화 약 96억 7,050만 원)	264,649명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USD 약 740만 달러 (한화 약 95억 4,156만 원)	88,047명
에티오피아	기후 위기, 분쟁	USD 약 460만 달러 (한화 약 59억 3,124만 원)	1,509,696명
콩고민주공화국	콜레라, 기후 위기	USD 약 370만 달러 (한화 약 47억 7,078만 원)	1,736,496명
예멘	분쟁	USD 약 360만 달러 (한화 약 46억 4,184만 원)	1,046,122명
소말리아	기후 위기, 기아 위기	USD 약 330만 달러 (한화 약 42억 5,502만 원)	3,666,832명

1 환율 표기(USD 1\$=1,289.4원 기준)

2 지원받은 사람 수: 주요 발생 재난을 포함하여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원받은 전체 인원수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아동 참여 워크숍에 참여한 라단(Ladan, 15세). 라단은 친구들과 함께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기아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 Save the Children

2023년 주요 위기별 인도적지원 내역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진행된 세이브더칠드런 전체 인도적지원 사업의 2023년 주요 위기별 지원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립니다.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대규모 반격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무력 전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 56년간 이스라엘에 점령되어, 약 16년 동안 봉쇄되었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에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는 12,900명 이상, 서안지구에서는 400명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33명 이상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2024년 상반기 기준),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는 하나(Hanaa)씨네 이야기

가자 지구에 거주했던 하나(Hanaa)씨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자 남편과 다섯 명의 자녀를 데리고 여동생의 집으로 피난했지만 그곳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하나씨네 가족은 세이브더칠드런 직원들과 함께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임시 보호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어 위생적이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씨네 가족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안전하게 집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시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는 하나(Hanaa)씨 (좌)

임시 보호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하나(Hanaa)씨의 자녀들, 히삼(Hisham, 12세), 바사르(Basar, 10세), 세이드(Said, 7세), 마리암(Mariam, 2세) (우)



© Save the Children



©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은 1953년부터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73년부터 가자 지구에서 심리사회적 지원,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s) 설치, 음식과 피난처 및 생필품 제공, 교육 지원 등 팔레스타인 아동과 가족을 위해 긴급구호부터 자립과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포함한 인도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약 920만 달러(한화 약 118억 6,248만 원)의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을 지원했으며, 아동 266,131명을 포함하여 총 530,882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대응 주요 활동

- 매트리스, 베개, 담요 제공 등 **임시 보호소 지원**
- 식품 및 기타 생필품 구입에 필요한 다목적 **현금 지원**
- 식수 공급, 보호소 위생 시설 수리, 존엄성 키트 제공 등 **식수 및 위생 지원**
- 의료 용품 배포, 전문 소아과 서비스, 장애 및 부상 아동 보조 장치 제공 등 **의료 및 보건 지원**
- 놀이 키트 배포, 여가 활동 지원, 아동 보호 조치 인식 제고 등 **아동 보호 및 심리사회적 지원**

임시 보호소에서 식량 키트를 지원받은 아동 알리(Ali), 아흐메드(Ahmed)와 아버지 오마르(O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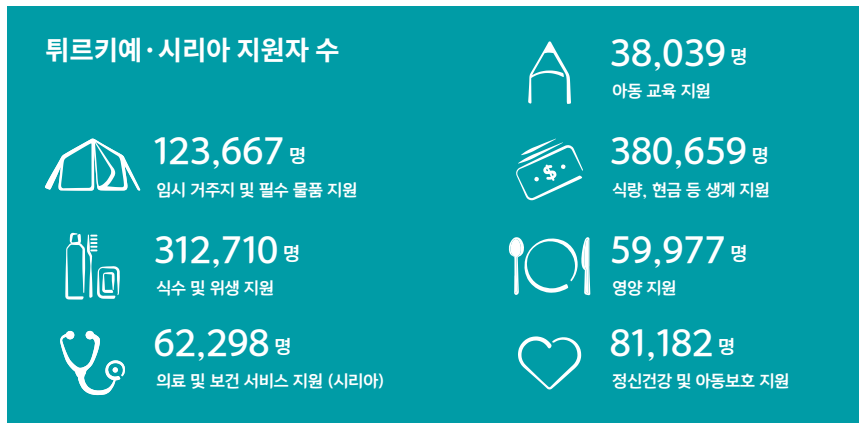
2.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저는 공부를 좋아하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하지만 지진으로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천막은 찢어졌고 빛도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 시리아의 마라(Marah, 11세)

2023년 2월 6일, 100년 만의 대규모 지진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5만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62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한 1,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30만 7,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어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튀르키예의 수많은 가정은 여전히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리아에서는 1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을 포함한 인도적위기 대응을 위해 2023년 동안 약 2,030만 달러(한화 약 261억 7,482만 원)의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을 지원하여 아동 512,441명을 포함하여 총 982,858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1년, 지원결과 보고' 확인하기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는 튀르키예 아동 부스라(Büşra, 11세)



3. 방글라데시 홍수

2023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지속된 강우로, 4개 지역 (Chottogram, Cox's Bazar, Bandarban, Rangamati)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인도, 미얀마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홍수까지 겹쳐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동 70만 명을 포함하여 총 13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 5,931명(아동 2,550명 포함)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1,240 가구를 선정하여 현금과 조리 도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동 보호, 위생 등에 관한 인식 제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금과 조리 도구를 지원받은

왕칭누(Wang Ching Nu) 씨 가족 이야기

왕칭누 씨 가족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방 도구는 물론 키우던 닭들과 채소밭이 물에 휩쓸려갔습니다. 이웃이 나눠주는 음식으로 겨우 생활하던 가족들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다목적 현금과 조리 도구 키트를 지원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망가진 집을 수리하고 식재료를 구입해 가족들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또한, 세 딸을 위한 옷과 학습 도구를 사고, 아픈 남편의 치료비로도 사용했습니다.

왕칭누 씨 가족은 홍수로 인해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 바자르의 로힝야 난민 캠프



4. 아프가니스탄 지진

2023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였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의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고 27만 5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 5,950명(아동 2,558명 포함)을 지원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물과 태양열 발전 수도 시스템을 활용해 가정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했으며, 각종 식량, 의약품, 옷 등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아동친화공간을 구축하고 관련 아동을 위한 놀이 및 학습 물품을 지원하여 지진으로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받은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지진으로 두 번의 큰 모래 폭풍이 발생했어요.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텐트 전체를 밧줄로 묶어야 했어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온 가족을 위한 음식과 따뜻한 옷, 필요한 약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 에드리스(Edris, 30세)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임시 거처(텐트)에서 지내는 에드리스(Edris, 30세)씨와 그의 아들 자위드(Jawid, 4세), 나집(Najib, 1세)



5. 글로벌 기아 위기




분쟁, 경제적 불안정,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전 세계 7억 8,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3억 3,300만 명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글로벌 기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정부 및 지역 조직과 협력하여 아동 권리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①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

영양실조 검사 및 치료	지역 사회 내 보건 인력 지원 및 보호자와 협력하여 아동의 영양실조 조기 발견 및 치료
의료 서비스	영양실조, 홍역이나 소아마비와 같은 치명적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 무료 지원
영양 교육 및 정보 제공	5세 미만 아동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모유 수유 상담과 대안 수유 지원 및 정보 제공

• 주요 사례

-  **아프가니스탄** 9개 주에서 5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급성 영양실조 검사 및 치료 지원, 예방접종 캠페인 진행
-  **시리아** 임산부와 수유모를 위한 개별 상담 지원, 가정에서 직접 자녀 영양 상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자 교육
-  **예멘** 영양 지원을 위해 국가 전역에 200개 이상의 의료 시설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설사로 면역력이 약해져 폐렴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주사와 약, 음식으로 치료해 주었고, 덕분에 아이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 마리움(Marium)의 엄마 줄리카(Zolaiikha, 23세)




폐렴, 설사 및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인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치료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아동 마리움(Marium, 10개월)



② 아동 가정의 생계와 자립 지원

생계비 지원	가정에 발생한 위급 상황 해결과 식량 및 필수 생필품 구입을 위한 생계비 지원
음식, 식재료 및 조리도구 지원	실향, 경제적 어려움, 분쟁 혹은 재난으로 취약해진 가정에 음식, 식재료 및 조리도구 지원
식수 및 위생시설 지원	식수 공급 차량 지원, 식수 정화, 우물 건축과 지역사회, 학교 및 보건소의 화장실 및 기타 위생 시설 건축
가축 및 농기구 지원	가뭄, 홍수, 분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가축과 사료 및 예방접종, 종자 및 농기구 지원




• 주요 사례

 아프가니스탄	식량과 기타 생필품 구입이 가능한 다목적 현금 지원
 콜롬비아	라과히아(La Guajira)의 수원 3곳을 복구하여 약 9개 지역에 안전한 식수 제공
 스리랑카	27,000 가구 이상에 씨앗과 농기구를 제공하여 텃밭 가꾸기 및 농업 활동 지원

③ 아동 교육 및 정서 지원

학교 급식 프로젝트 운영	굶주림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수업 집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급식 지원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지원	분쟁, 재난 등으로 집을 잃은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임시 학습 센터 설립, 교육 및 학습 자료 제공, 교사 지원
심리사회적 서비스 지원	아동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친화공간 마련 등 심리사회적 서비스 지원

• 주요 사례

 파키스탄	홍수 피해를 입은 47곳에 임시 학습 센터 설립 및 집을 잃은 아동의 교육 지원
 스리랑카	아동 3,000명에게 사회·정서적 학습 키트(Tilli) 배포 및 놀이를 통한 감정 표현 학습 지원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피해 난민 캠프 내 아동친화공간 마련 및 지역 사회 기반 아동 보호

무장 단체의 기습으로 난민 캠프에서 지내며 아동친화공간에서 구슬 놀이를 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아동



골든타임 72시간 내 아동을 구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지원 기금

세이브더칠드런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골든타임 72시간 내 아동을 구하고,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적지원 기금(The Humanitarian Fund)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인도적지원 기금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세이브더칠드런 30개 회원국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금한 구호자금과 특정한 재난을 위해 모은 구호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72시간 내 신속한 긴급구호 진행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재난과 국가 지원

재난 발생 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현지 파트너 기관들이 인도적지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강화

2023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확보된 인도적지원 기금 덕분에 신속하게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글로벌 기아 위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후원자님과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은 누구보다 먼저 재난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까지 한 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의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보내주신 긴급구호 후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72시간 내에 안내 문자(알림톡)를 보내드립니다. 투명한 후원금 사용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우)04080

대표번호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



Save the Children



홍수로 학교가 침수되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설립한 임시 학습 센터를 다니는 아프가니스탄의 나피사(Nafeesa, 10세)
© Khaula Jamil/ Save the Children